

“서구 인문학에 바탕을 둔 현대의 ‘문헌학적’ 불교학은 오늘날 불교학이 이만큼이라도 존립할 수 있게 한 공로 자이긴 하지만 전통적 불교신앙을 훼손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서구 인문학에 바탕을 둔 현대불교학에 메스를 들이대며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헌학적 연구가 불교학의 전부인가”를 비판적으로 다룬 글이 잇달아 발표돼 관심을 끈다.

강종원(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씨는 최근 나온 계간 <불교평론> 2003 여름호(통권 15호, 불교시대사)에 발표한 ‘철학함과 문헌학 :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성찰’에서 “지금까지 소위 ‘불교학’이라고 부르는 학문 활동에서 주류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문헌학이 불교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헌학이 ‘불교학의 전부’ 인가?”

서구 인문학 바탕 기존연구에 비판 잇달아

분석과 해석 통해 ‘짜깁기 철학’ 극복해야

불교는 학문 넘어선 삶의 방식·존재양식

은 불교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분석과 해석’이라는 ‘철학(학)’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강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문헌학적 활동을 하는 것인가”를 이는 것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철학적 활동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짜깁기 철학’이라는 판단이 파생한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미래 불교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씨는 “불교도가 아닌 불교학자는 ‘불교철학사’가 될 수는 있지만 ‘불교철학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불교철학자’는 ‘철학학’이라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옹호하고 자 하는 신념체계가 불교인 학자’라고 밝혔다.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문명과 언어학과를 수료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용(영남대 객원교수)씨가 반년간 <종교문화비평 3호>(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 기고한 ‘학문의 이중교배 : 왜 불교신학인가?’는 “문헌학”을 뜻하는 서구에서 최근 일고 있는 불교학 연구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소개한 글이다.

1996년 미국 종교학회(AAR)의 연례대회에서 새로운 분과로 등장한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이 바로 그것이다.

이 씨에 따르면 문헌과 자료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대상물이 된 불교가 학문의 대상을 넘어선 ‘삶의 한 방식’이며 ‘존재양식’이라는 비판의 결과 나온 새로운 시도가 바로 ‘불교신학’이다. 이는 곧 과거 지향적 문헌 속에 갇혀 있던 불교를 현장의 것으로 깎아내리는 전체가 깎여 들어 있는 것이며, 문헌학·비판적 관점·현대적 해석이라는 신학적 틀을 흡수하여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을 재생성하려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씨는 ‘불교 유훈 지침’의 역할을 했던 불교학자들의 입장을 살피는 한 양태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이 불교신학 창안의 배경이라며 이는 ‘불교의 학문적 추구의 궁극적 관심이 지식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모적 수행에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벽암이 새로 쓴 화엄사 역사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잿더미로 변한다.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라지고 석조물만 남게 된다. 이때 벽암각성(碧巖覺性)이 등장하면서 화엄사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벽암대사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모아 한양으로 진격한 공으로 왕실과 백성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던 분이다. 허능(虛能)의 <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에 의하면, 1632년 벽암이 화엄사를 개수하려 하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니, 절은 어느새 큰 총림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연기 조사가 화엄사에 효(孝)를 심었다면, 벽암대사는 충(忠)을 펼친 분이다.

이 중심건물이라 생각할 즈음, 계속 왼쪽으로 돌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면서 높은 기단 위에 각황전이 갑자기 그 위용을 드러낸다. 각황전은 중심건물인 것이다.

각황전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층 건물로서 사찰건축 가운데 가장 웅장하다. 장엄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웅대하지만 근엄한 품위를 갖춘 건물이다. 이 정도 규모와 위용이면 궁궐건축에 버금가는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도 정면 5칸, 측면 5칸에 불과하다. 내부를 들어가면 1층과 2층이 하나로 뚫려 있어 밖에서 느끼는 웅장함은 배가된다. <봉상지(鳳城誌)>를 보면, 이 건물은 670년의 상대가 화엄사를 중창할 때 왕명으로 3층의 장륜전(丈六殿)을 짓고 그 주위를 둘에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연잉군과 숙빈 최씨의 앞날을 축원하기 위해 지은 각황전은 궁궐 규모에 버금가는 전각이다.

‘연기조사의 효’ ‘벽암대사의 충’ 어우러져

장엄·웅대한 품위 ... 궁전건축물에 버금가

이지만, 오늘날 화엄사의 면모를 세운 분이 고 각황전 건립을 주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벽암대사는 해인사 대장경판교 중영을 시작으로 남한산성 축성, 완주 송광사 창건, 하동 쌍계사 재건, 안변 석양사 재건 등 17세기 불교 중흥을 이끈 분이다.

새긴 화엄경으로 들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조각으로 남아 있는 화엄석경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있다. 임진왜란 때 장륜전이 불타면서 석경이 산산조각 났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각황전 주위에 돌무더기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석경이 불전에 어떻게 부속되어 있었던 것인가? 중국 베이징 인근에 있는 방산을 가면 석경으로 장엄된 석굴을 볼 수 있다. 다만 장륜전은 주위에 석경이 둘러져 있는 차이가 난다.

지리산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화엄사는 일주문에서 인왕문, 사천왕문을 거쳐 보제루에 이를 때에도 왼쪽의 봉우리에 의지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오른쪽은 열어도 없다. 한쪽은 건물로 한쪽은 자연으로 명료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오른쪽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 화엄사 가람배치의 극치는 보제루 너머 마당에서 펼쳐진다. 보제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통일신라 석탑과 단아한 단층의 대웅전이 보여 이곳 정이다.

오늘날 화엄사의 역사는 연기조사의 효를 씨줄 삼고 벽암대사의 충을 날줄 삼아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사사자삼층석탑에 새겨진 드라마와 각황전의 압도적인 웅장함은 화엄사를 화려하게 빛낸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3층 목탑식 전각이다. 그런데도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1984년 화재로 불탄 것을 1986년 다시 복원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옛 형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 작성해 놓은 실측 도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보고서 발간

문화재청, 보수·복원때 기초자료로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재청이 1999년부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139건에 대해 정밀실측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도, 흑시 모를 목조문화재의 훼손이나 소실에 대비, 보수나 원형 복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24번째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인 <부석사 무량수전>편을 최근 발간했다.

‘본문’과 ‘도판’ 2권 1집으로 나온 보고서의 ‘본문’ 편에는 부재 하나하나의 정밀 실측 자료뿐 아니라 사찰의 연혁을 알려주는 중수기와 목서명(墨書銘), 비명(碑銘) 등의 문헌 자료와 단청 안료 분석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500부를 제작해 대학도서관이나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배포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사업은 해마다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매년 5~10건씩 2008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 수리보고서가 나와 있거나(19건) 보수 예정인 문화재는 제외된다. 해체보수시의 실측 자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철 스님 10주기 기념 10월 국제학술대회

타종교·인문분야 등 국내·외 학자들 참석

불교는 흔히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조계종 전 종정 성철(1912~1993) 스님의 수행기풍과 선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성철선사상연구회(위원장 성철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10월 16~17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그 동안의 토론논쟁이나 간화선 논쟁이 수행방법을 다뤘던 깨달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술회의준비위원장 조성택 교수(고려대)는 “깨달음, 특히 돈오(頓悟)적 깨달음이 불교 안에서의 현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경험의 하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교학 전공자뿐 아니라 유교, 기독교, 이슬람 등 동·서양의 종교 전공자와 인문학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깨달음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논의하고 문화론적 관점에서 깨달음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할 계획이다.

국내학자를 위주로 외국학자 및 명을 끼워 넣는 ‘구색 맞추기’식 국제학술회의가 아니라 외국발표자가 더 많은 것도 관심거리다. 중국 스환(四川)대학 종교학연구소 첸빙(陳兵) 교수, 일본 도요기쿠엔대학 찰스 윌러 교수,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쿠엔 투 구엔 교수, 하버드대학 로버트 지멜로 교수, 캔터키대학 올리버 리만 교수, 플로리다대학 마리오 포제스키 교수 등 주제 발표자 14명 중 9명이 외국학자다. 국내학자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목장배 총장, 미국 뉴욕주립대 박성배·전현 교수, 조지메이슨대학 노찬영 교수, 김경집 박사(진각종 종학연구소실상심연구회)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채식 위주 식단, 음식 쓰레기 없애기 등 환경 친화적인 ‘그린학술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서이문 서술사 중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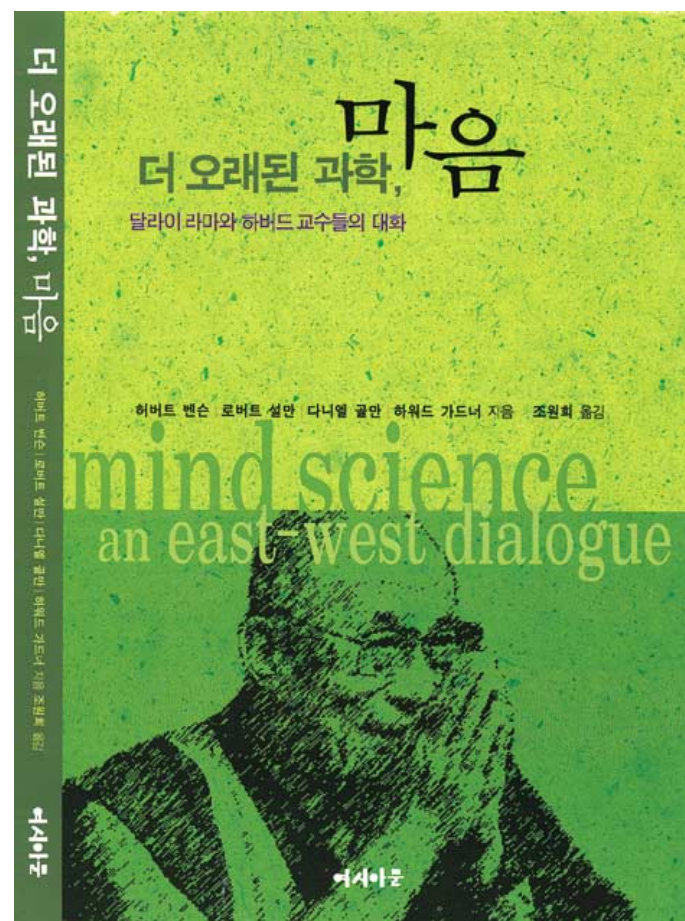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제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부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스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 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하버트 벤스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9년 / 9,000원

☎ 법보시 연락은 02)373-0695로 연락 주십시오.

mind science